빠르게 늘어가는 '초등 의대반'… 교육부, 특별점검 나섰다

정상 교육과정 최대 14배 선행
실태조사 등 사교육 폐해 방지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 노력"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이 2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학원가에 현장 점검에 나섰다.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이 성행하고 있는 점을 우려해서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오른쪽)과 설세훈 서울시부교육감(왼쪽)이 학원을 점검하고 있다. /교육부

'초등 의대관, 초등 3~6학년 대상 의대 진학 기회의 창이 열립니다.'

최근 의대 진학을 목표로 초고속 선행 교육을 진행하는 '초등 의대반'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교육부가 23일 학원가 특별 점검에 나섰다. 일부 학원에서는 초등 저학년 학생에게 고교 수학 과정을 가르치는 등 정상 교육과정의 최대 14배 속도로 선행 학습이 이뤄지고 있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교육 1번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을 중심으로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한 '초등의대반'이 다수 운영되고 있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인터넷 광고도 횡행한다.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는 금지되지만, 처벌 규정은 없어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백병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맞물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대반이 전국적으로 과열 확산 추세로, 이들 학원 중심으로 과거의 선행학습 관행을 뛰어넘는 초고도 속진 선행상품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걱세 조사에 따르면, 대치동 H 학원 '초등의대반'의 경우 초등 5학년부터 시작해 39개월 동안 중학교 수학에서 고교 3학년 이과 수학까지 끝내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대치동의 N 학원의 경우 초등 3학년에게 고교 1학년 수학에서부터 수학2인 미적분까지의 범위를 가르치고 있었다.

G 학원은 초등 2학년에서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의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초등 5학년 과정은 7년을 앞당겨 고등학교 2학년의 수학1까지 다루는 선행교육을 시행한다. 이 학원의 선행학습의 진도 속도를 계산하면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대비 14배 '초고속 속진 선행교육'을 제공하는 셈이다.

이에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지난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청의 '의대 입시반 운영 학원' 실태조사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점검을 통해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광고 130건을 적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진학을 위해서는 교과 선행 및 심화뿐 아니라, 경시대회 수준 문제를 통해 초격차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야 한다'라거나 '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반 개강, 입시 성공은 초등학생 때 결정된다' 등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인터넷 광고 사례를 적발했다"라며 "적발 결과는 해당 교육청에 통보해 해당 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전국 각 시도교육청은 특별 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고, 거짓·과장 광고 및 탈세 의혹 등이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는 이번 학원 특별 점검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이용한 과도한 선행학습 등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경기도, '방학 중 행복밥상' 확대 운영

총 예산 22.2억… 30개 시군 지원

경기도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방학 중 중식 비용 절반을 지원하는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시행 지역을 올여름 방학부터 기존 23개 시군에서 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6~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기(오후 1~8시)와 방학(오전 9시~오후 6시) 운영하는 초등돌봄시설로 경기도에 310개가 있다. 문제는 학교에서 중식이 제공되는 학기와 달리 방학 때는 센터에서 자부담으로 식사를 해결해야 했다.

이에 경기도는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사업을 2024년 1월 겨울방학부터 시작해 용인시 등 23개 시군 다함께돌봄센터 198개소 4550명을 지원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수원, 부천, 안양, 의정부, 오산, 안성, 연천 등 7개 시군을 추가해 30개 시군(자체 사업이 있는 성남 제외)에서 전면 시행된다.

특히 여름방학부터는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인 학교돌봄터에서도 중식 비용 지원이 이뤄져 도내 30개 시군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7465명과 7개 시군 11개 교 학교돌봄터 이용 472명 등 총 7937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총예산은 22억 2700만 원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급식비 9천 원(1식 기준)에서 도와 시군이 급식비의 50%를 보조 지원하고, 이용 가정이 나머지 50%를 자부담하는 것이다. 급식은 돌봄센터 내 조리실을 활용하거나 외부 급식업체(도시락)와 연계해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양질의 표준화된 급식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

대교협, 내일 '수시 대입박람회' 개최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
149개 대학 참가… 상담관 등 운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에서 '2025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수시 대입박람회에는 전국 149개 대학이 참가해 각 대학의 전형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상담을 진행한다.

'참가대학별 상담관'에서는 입학관련 교수, 입학사정관, 교직원 등이 해당 대학의 전형 결과를 바탕으로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모집요강과 전형 안내자료 등을 무료로 배포하고, 해당대학의 입학정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대교협 '대입상담교사단'도 현장을 찾아 1대 1 대입상담'을 진행한다. '1대 1 대입상담'은 코엑스 3층(319~326)에서 박람회 기간 중 진행하고, 사전 예약을 통해 운영한다. 상담 시간과 인원 제한으로 인해 상담을 받지 못한 수험생들은 박람회 이후에도 대교협 '대입상담센터'의 전화상담 서비스 및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동일한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의 입학정보와 전년도 입시결과 등을 직접 검색해 볼 수 있는 '대입정보 종합자료관'이 특별관으로 운영된다.

한국장학재단 홍보관에서는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국가 장학금 등 안내 및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소개가 이뤄지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홍보관(체육특기자 선발 종목·대학·전형·인정대회별 검색서비스 및 활용 안내, 체육특기자 대입 정보 제공)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홍보관(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정보 제공) ▲전공자율선택제 홍보관(전공자율선택제 확대 취지 및 학생들에 대한 기대효과, 관련 모집 학과 정보 제공) ▲대학알리미 홍보관(대학알리미 검색 방법 시연 및 안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홍보관(차세대 대학입학전형 종합지원시스템 '어디가' 및 표준공통원서 접수시스템 활용방법 안내) 등의 특별관도 마련된다.

전시장 입장 예약 방법은 대학입학정보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람회 입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입장 마감시간은 오후 4시 30분, 입장료는 2000원이다.

/이현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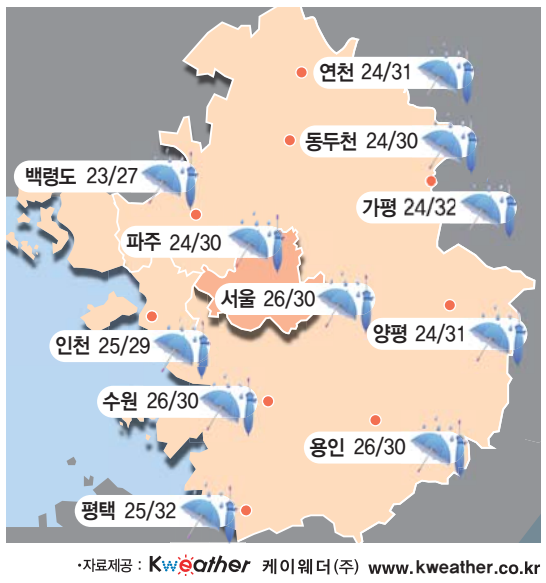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7월 24일(水) 음력 : 6월 19일

해뜸 / 05:30 | 해짐 / 19:47

수도권 날씨 26~30℃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서울시, 이달말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30일부터 600억 규모 판매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6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25개 자치구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하다. 오프라인 가맹점뿐만 아니라 우체국쇼핑 내 서울시 소상공인 온라인전용관(e서울사랑샵)에서도 쓸 수 있다.

상품권 구매는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에서 하면 된다. 출생 연도(주민등록번호 둘째 자리)에 따라 '홀수'는 오전 10시~오후 2시, '짝수'는 오후 3시~저녁 7시에 상품권을 살 수 있다. 발행 금액은 오전·오후 각 300억원씩 총 600억원이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5% 할인된 가격으로 1인당 월 3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hjk1@

오세훈 서울시장 7박9일 해외출장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부터 내달 1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 중국 충칭과 베이징으로 해외출장을 떠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출장에서 오 시장은 기후분야 국제회의에 참석해 전 세계도시들과 기후 위기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바이오·로봇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방문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김현정 기자

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러시아 "프랑스 측 파리 올림픽 취재 거부는 언론 자유 침해"
▲'매직넘버' 확보한 해리스 "곧 공식 후보지명 수락 고대" /사진 뉴시스

▲中, "핵무기 먼저 사용 안할 것 약속해야" 제안
▲대만 라이칭더 트럼프에 '올인설'… 총통부 "사실 아냐"

▲교황 이어 마크롱, 바흐 IOC위원장도 '올림픽 휴전' 요청 /사진 뉴시스
▲블링컨 미 국무, 8일간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6개국 순방